

주식 시장도 '수도권 쏠림'...광주·전남 주식 소유자 5%뿐

예탁결제원 '22년 상장사 주식 소유자'

주식 시장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민이 보유한 국내 상장법인 주식의 72%에 달한 반면,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보유한 주식은 5% 수준에 불과했다. 여기에 전남지역은 인구수 대비 주식 소유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379만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서울은 355만명(24.6%)이었다. 서울과 경기

광주 2.7%·전남 2.2%...전남 인구수 대비 소유자 '전국 최저'

서울 619억주 355만명·경기도 188억주 379만명 '절반 넘어'

등 수도권 거주민들이 국내 상장사 주식을 절반 넘게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두 도시에 이어 부산 88만1779명(6.1%)→경남 75만9300명(5.3%)→인천 72만2655명(5.0%)→대구 65만 3314명(4.5%) 등 순으로 많았다.

광주는 39만1169명, 전남은 32만1109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국적인 비율로 보면 각각 2.7%,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남은 특히 인구수가 더 적은 지자체인 대전, 광

주, 울산, 충북지역 보다 주식을 소유한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보다 주식 소유자가 적은 지자체는 강원과 제주, 세종 등 인구가 많게는 5배 이상 적은 곳 뿐이었다.

주식 소유자가 적은 전남은 인구수 대비 주식 소유자 비율이 17.7%로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원(19.1%), 제주(19.6%) 보다도 적은 수치였으며, 광주는 27.3%(상위 7위)였다.

소유 주식수의 경우 서울이 619억주(55.9%)로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절반 넘게 가지고 있었으며, 이어 경기도 188억주(17.0%), 부산 38억주(3.4%), 경남 28억주(2.6%), 전북 28억주(2.5%), 인천 24억주(2.3%) 순이었다.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 사의 소유자(중복소유자 제외)는 약 1441만명(법인소유자 등 포함)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전체 소유자 약 1441만명이 소유한 총 주식수는 약 1108억주로 소유자 1인당 평균 약 7688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 유형별로는 개인 소유자가 1424만명(9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소유자

1인당 평균 소유 주식수에서는 법인소유자가 약 94만주로 개인소유자(3840주) 보다 많았다.

소유자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전자였다. 638만 755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뒤이어 카카오(206만6529명), 현대자동차(120만 9826명)순이었다.

아울러 외국인 소유자 주식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는 동양생명보험(82.0%), S-OIL(77.3%), 락앤락(77.1%)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43만명(52.2%), 여성이 681만명(47.8%)이며, 남성은 399억주(71.1%), 여성은 162억주(28.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치 담가 먹는다” 4년새 절반 줄어

2021년 10가구 중 2가구 그쳐...“사 먹는다” 33.0%

김치 소비가 감소하면서 최근 수년간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가구 비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를 담그는 대신 상품김치를 사서 먹는 가구 비중은 3배 이상 급증했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1 김치산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김치를 직접 담가 조달한다는 비중은 22.6%로 2017년보다 33.7%포인트나 줄었다.

이 비중은 2017년 56.3% 수준에서 2018년 51.3%, 2019년 41.7%로 줄었고 코로나 첫해인 2020년 23.6%로 급감한 데 이어 2021년 22.6%로 소폭 더 감소했다.

연도별 수치는 세계김치연구소의 김치산업 동향 보고서와 aT의 김치산업 실태조사, 소비자 가구 실태조사 결과 등의 소비자 가구 대상 조사를 비교한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성 추구 경향 및 1인 가구 증가로 김치를 담가 먹는 가구는 갈수록 줄어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코로나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가정 안에서 가족과 같이 김치를 담그는 것이 쉽지 않은 특수 상황이었어서 비중이 급감한

추연도 있다.

지난 2021년 김치를 직접 담그지 않는 가구 비중은 76.7%로 2017년(43.7%) 대비 33.0%포인트 늘었다. 집에서 아예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비중은 0.7%였다.

김치를 직접 담그지 않는 가구 중 상품구입 구입 비중은 33.1%로 2017년(10.5%)의 3배가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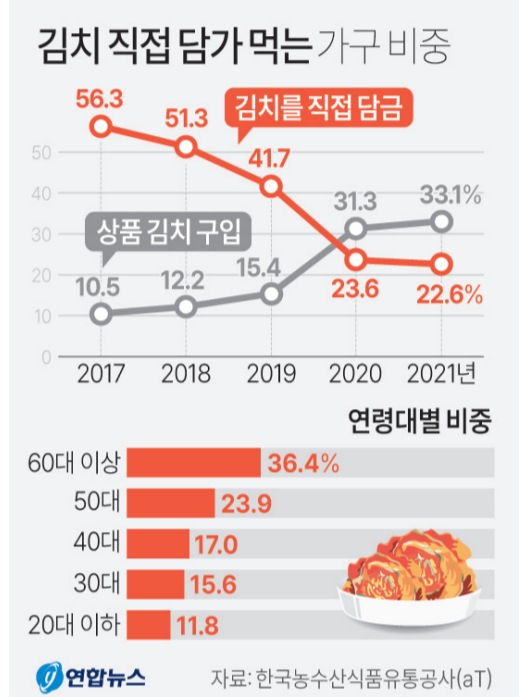
나머지는 부모·형제 등 가족에게서 얻는 비중이 29.1%였고 친척이나 지인 등에서 얻는 비중은 14.5%였다.

가족·친척·지인 등에서 얻는 비중이 총 43.6%로 2017년(14.7%)과 비교해 보면 역시 약 3배였다.

상품김치 구입 비중의 경우 시(市) 지역(34.6%)이도(道) 지역(31.9%)보다 높고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가구 비중은 도 지역(23.6%)이 시 지역(21.4%)을 앞섰다.

연령이 높을수록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비중도 높았다.

60대 이상은 36.4%로 20대 이하(11.8%)의 3배가 넘었다. 그 외 30대는 15.6%, 40대는 17.0%, 50대는 23.9%였다.



또 2인 이상 가구의 직접 담금 비중이 27.0%로 1인 가구(12.3%)보다는 2배 이상 많았다.

상품김치를 구입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맛(32.5%), 가격(17.0%), 원산지(16.8%) 등의 순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단공 광주본부 '수출멘토링 서비스' 멘토단 위촉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 이하 산단공)는 30일 광주지역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 수출지원단 내 '수출멘토링 서비스' 멘토단을 위촉하고 현장 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수출멘토링 서비스는 수출 경험이 풍부한 멘토 기업이 중심이 돼 수출타겟기업(멘티)에게 다양한 현장경험을 종합적으로 전수한다. 특히 업종별 '1(멘토)대 3(멘티)대 1(전문위원)' 소규모 그룹 매칭을 통해 수출 장애요인을 극복하게끔 돕는다.

멘토단은 멘토기업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KOTRA 전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멘토기업은 의료, 광융합, 스마트전자-에너지융합 자율형 MC 활동기업 6개사로 구성됐다. 멘티기업은 전년도 직수출액 10만달러 미만 초

보기업 중 수출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산단공에서는 1년 동안 멘토링, 컨설팅, 과제지원 등을 통해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산단공은 2022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정 국가의 광통신망 시장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산단공은 입주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컨설팅, MOU 체결 등 단계별 지원을 했는데 해당 컨소시엄은 3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황상현 산단공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은 "수출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광주권 산업단지에 수출 활력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 애로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들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나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전남 농협 '조합장 한마음대회' 개최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30일 무안군 상항읍 스키야웨딩컨벤션에서 지역 농·축협 조합장 및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농협 조합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지사,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의 당선 조합장들이 '살고 싶은 농촌, 함께하는 100년 전남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관내 144개 농·축협 조합장들은 상견례

하는 시간을 갖고 농협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조합원 권익증대와 살고 싶은 농민·농촌을 만들기 위한 전남농협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조합장 동시선거 이후 조합원들의 농협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높다"며 "전남농협은 이번 한마음대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일직단결해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전남 농촌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앞장서는 새로운 전남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동구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업무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시 동구청에서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박종준 광주은행 부행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광주시 동구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금융사기 피해 사례 안내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금융앱(APP)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335건, 피해액은 96억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 사례가 전체의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금융사기의 다양한 유형 및 대처 방법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디

지털 금융생활 적응에 큰 도움을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준 광주은행 부행장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젊은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환경이 낯선 시니어층은 디지털 금융 및 문화에 소외되기 쉽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스피	2453.16(+9.24)
코스닥	850.48(+6.54)
금리(국고채 3년)	3.258(+0.009)
환율(USD)	1299.00(-3.70)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4월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HF·이하 주금공)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신청자도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

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향후 자금 조달시장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4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무풍당당 에너지 페스타' 삼성전자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2023년형 무풍에너지 에어컨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무풍당당 에너지 페스타'를 진행한다(30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